

SPECIAL FEATURE

글 정영수(미술평론가) 이미지제공 THE PAGE GALLERY, TheWeekendRoom,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

# 터널의 끝을 예감하며 빛을 그려내기: 세 작가의 원더풀 월드

## 코로나 시대의 미술

감히 지금을 터널의 끝이라 부를 수 있다면, 우리가 지금 하나의 역경을 헤쳐 나와 잠시 숨을 돌린 상태라면, 물론 다시 겨울이 찾아오겠지만 그럼에도 봄을 감각하고 있다면, 같은 시기를 지나온 작가들은 지금껏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새삼 궁금해진다.

아마 미술을 하고 있을 것이다. '블라인드로 새어 들어오는 오후의 빛 아래에서' 터널의 끝을 예감하며 그것을 형태로 빚어내고 있었을 것이다.

그들은 환희의 세계를 더듬어 감각하거나(CEVIGA Kyung Ok Paik Frahm, 세비가 프람), 혹은 너무 밝은 세계로부터 거리를 유지한 채 지그시 바라보거나(최지원), 이도 아니면 자신의 환상적인 세계를 만들어내고 있었을 것이다(서도호와 아이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이 이 동작들은 단순한 유희가 아니다. 그것은 현실과 구분되지 않는 것, 외지인들에게는 환상이지만 부족민에게는 현실인 것, 장막 너머의 세계를 호출함으로써 이곳이 한 뼘만큼 넓어지는 것. 결과적으로 하나의 생명체로서 전시장에 자리하는 것. 작가는 고난 끝에 그들을 불러오지만 정작 이유는 망각한다. 그 이유를 앞질러 발설하는 것은 다소 부박하고 좁스런 일이지만 작가들이 불러온 생의 표현들이 어떤 식으로 자리하고 있는지, 그들이 춤추는지, 가만히 서 있는지, 혹은 시끄럽게 떠들며 말을 걸어오는지 정도는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 가장 조용한 곳에서의 폭발

세비가 프람, 혹은 백경옥. 국내 관람객에게는 다소 낯선 이 작가의 작품들은 작가 자신을 둘러싸고 춤

을 춘다. 작가는 이 생동하는 이미지들이 자신의 내밀한 경험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이 이미지들은 코로나에서 회복되며 느낀 새로운 감각의 경험이거나 혹은 샤워 중 마주친 자신의 충만한 모습이다. 그러나 세비가 자신이 이러한 장면들을 포착하거나 재현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 듯하다. 세비가 그림은 정적인 기억이 아니다. 그녀가 마지막 붓 터치를 마치고 뒤를 돌아보아도 그림은 여전히 움직인다. 그것은 그녀가 붙잡고 싶었던 어떤 순간이 아닌 여전히 움직이는 생명, 스스로 춤추는 그림이다. 보는 사람마다 그림에서 발견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은 그림이 하나의 생명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세비가 그림이 위치한 곳은 '하나의 점에서 시작된 새로운 세계이자 그녀가 붓으로 탐험한 시공간이다. 그 시작은 일종의 자화상이었음에도 결국 작가 바깥에서 움직인다는 측면에서 이것은 하나의 잉태다.

세비가 샤워기를 들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본다. 뜨거운 물이 만드는 증기 안에서 그녀는 샤워기를 땀줄이라고 착각한다. 이 유희적인 착각의 반대편에는 그녀가 수태한 거울 세계의 자신이 있다. 그녀를 닮은 이 조각은 샤워기와 함께 영커 일종의 춤을 춘다.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춤이 그녀와는 별개라는 것이다. 작업이 끝나면 조각은 스스로, 저편에서 춤을 추지 그녀와 함께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그녀는 여정이 끝날 때마다 '공허함의 파편 속에서 새로운 나를 만난다.' 그녀의 그림은 창작과정에서는 강렬한 경험이지만 그것이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겨울 저편으로 숨어드는 다른 세계의 아이이다. 그녀가 감각하는 산고의 과정은 매혹적이다. 그것

은 왜일까. 무언가 섞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반복적으로 무언가 섞이는 장면을 묘사한다. 그녀의 작업에서는 소금과 설탕이 섞이거나, 거울 저편의 나와 여기의 내가 샤워기로 영키거나, 점에서 시작된 환상적 세계와 '피부 없이' 섞인다. 그 디오니소스적 순간, 환희의 순간이 매혹적이기에 그녀는 공허함 끝에도 새로운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 아닐까. 결과적으로 그녀는 수많은 거울, 스스로 춤추는 거울들에 둘러싸여 다시금 새로운 거울을 창조해낸다. 이것이 그녀가 밝음을 그려내는 방식이다. 가장 조용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폭발, 태아적 상상력, 빠져나올 수 없이 아름다운 순간이다.

## 고요한 기다림, 깨져버릴 노스텔지어

최지원이 아름다움을 감각하는 방식은 다소 다르다. 그의 인형은 멈추어 무언가를 기다린다. 세비가 그림들이 뒤를 돌아보아도 여전히 춤추고 있을 것만 같이 매 순간 형태가 바뀐다면 최지원의 인형은 뒤돌아 한참을 바라보지 않아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다.

여기서 인형은 일종의 박제이다. 작가가 의도적으로 박제해둔 어떤 순간이자 진공과도 같은 공간에서 다른 부장품들과 함께 감히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이다. 아이러니한 점은 관객인 우리는 프레임을 통해 박제된 인형을 바라보지만, 그 역시 어떤 곳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인형이 바라보는 것, 그리고 기다리는 것은 무엇일까.

인형이 바라보는 것은 정지된 또 다른 순간이다. 인형은 우리가 액자를 통해 그림을 바라보듯이, 그 자신도 문을, 창문을, 박제된 액자를 통해 어떤 순간을

SPECIAL FEATURE



세비가 프람, <Saltsugar I>, 캔버스에 유화, 165x135cm, 2022



세비가 프람, <A growing star on the otherside>, 캔버스에 유화, 180x165cm, 2023

관찰한다. 세비가가 ‘빠져나올 수 없이’ 아름다운 순간에 갇혀 계속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최지원의 인형도 자꾸만 어떤 순간을 바라보고 그것을 담아낸다. 그리고 그 박제는 다시 한번 하나의 그림이 되어 관객을 끌어들이는다. 인형의 시선들이 교차하는 전시장에서 우리는 마치 타임머신을 탄 듯이 채집된 순간들 사이를 넘나든다.

인형이 바라보는 것이 박제된 순간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무언가를 박제한다면, 어떤 것이 박제되는가. 그것은 창가에서 말라붙어간 말벌이거나, 한때의 기억을 간직한 채 움직임을 잃어버린 모조품이거나, 혹은 무감각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기다리는 인형이거나, 본질적으로는 그것들이 이루는 하나의 순간이자 찰나의 공기를 머금은 공간이다. 이렇게 되돌아갈 수 없는 찰나를 움켜쥐려는 시도에는 일종의 노스텔지어가 포함되어 있기도 하지만, 그렇기에 그 고요함이, 무언가를 계속해서 기다리는 정적인 순간이 아름답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거꾸로 우리는 그 고요함 속에서 동요한다. 고요함이 깨질 것만 같은 불안감, 매끈한 표면에 금이 갈 것만 같은 예감이 엄습한다. 이렇게 최지원은 삶과

죽음 사이에서 기묘한 긴장감을 만들어낸다. 인상적인 것은 작가의 근작에서 모종의 변화가 느껴진다는 것이다. 2020년 초에 열린 작가의 개인전 <차가운 불꽃>에서 작가의 인형은 종종 무감각한 표정으로, 눈앞에 불꽃이나 가시가 있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듯, 혹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로 결심한 듯’ 가만히 서 있었다. 물론 이번 개인전 <채집된 방>에서도 작가의 인형은 여전히 무감각한 표정으로, 그리고 가만히 정지해 사테로부터의 거리를 유지하지만, 그럼에도 무언가를 응시하기 시작했다. 기존의 인형이 보기를 거부함으로써 혼란한 사테와의 거리를 유지한 것과 구별되는 지점이다.

**수다스럽고 환상적인 동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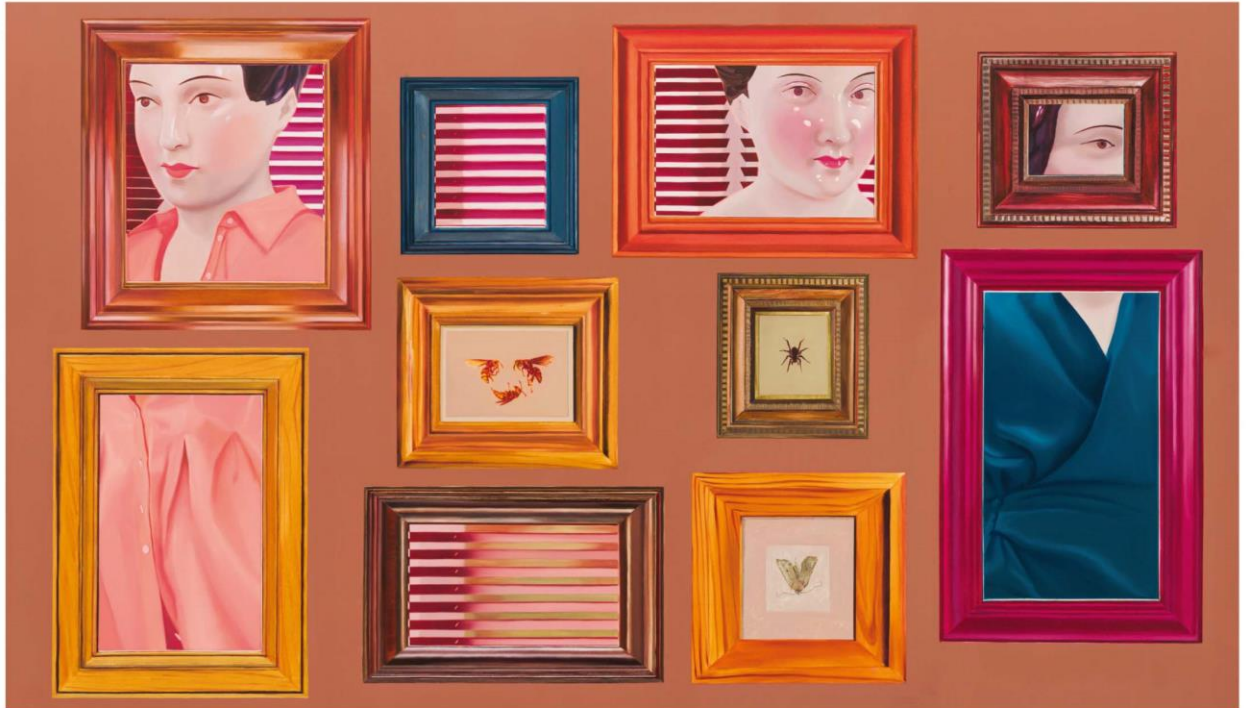
세비가가 환상을 계속해서 ‘잉태’하며 순간을 한껏 유희하고, 최지원이 환상을 ‘박제’하며 순간을 채집한다면, 환상의 세계를 직접 구현하는 이들도 있다. 서도호와 아이들은 지난 7년간 거대한 환상 세계, 움직이는 동화를 직접 만들어냈다. 이 환상 세계는 말수가 적은 앞선 두 작가의 그림들과는 달리 저들

끼리도 수다스럽게 말하고, 우리에게도 경계 없이 말을 걸어온다.

표현력이 풍부하고 귀여운 슬라임은 팬케이크를 쌓아둔 것처럼 생긴 ‘풍용’에 올라타기를 좋아한다. 무서운 ‘스포키 트리’는 닿으면 돌연변이를 일으키기 때문에 무인도에 격리되었다. 한때 ‘스포키 트리’가 돌연변이를 일으켜 큰 혼란이 생긴 적이 있다... 서도호와 아이들의 아트랜드에서는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아이들은 이 사건사고의 세상에서 신나게 뛰어논다.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 놀 수 있는 것은 작품이 수다스럽기 때문일 것이다. 격의 없이 말을 걸어오는 작품 앞에서 아이들은 감상에 앞서 우선 참여한다. 공식적으로 작품에 참여할 것을 요청받은 아이들은 제각기 분신을 하나씩 붙이며 작은 환상 세계였던 것을 작가지차 예상할 수 없었던 크기로, 하나의 공간이자 현실로 만든다. 작가 본인과 아이들의 놀이를 위해 만든 점토가 사람보다 커져 우리를 위로하는 순간, 수다스러운 아트랜드는 치유의 공간으로 변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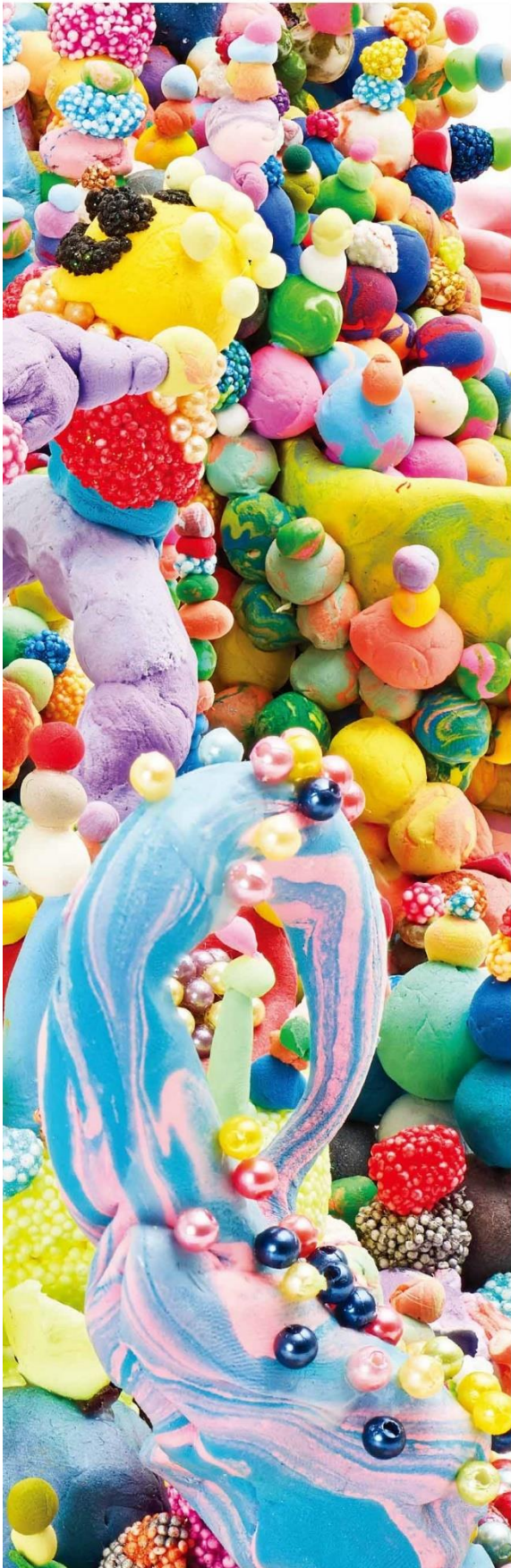
그러나 아이에게는 치유의 공간이었던 이 작업이



최지원 <채집된 거울(Frame Collector)>, 캔버스에 유화, 112.1x193.9cm, 2023  
©Courtesy of the artist and ThisWeekendRoom, Seoul



최지원 <멈춰버린 순간(The Paused Moment)>, 캔버스에 유화, 162.1x227.3cm,  
2023 ©Courtesy of the artist and ThisWeekendRoom, Seoul



서도호와 아이들, <아트랜드>, 어린이 모형 점토, 가변크기, 2016~진행중 사진: 프루던스 커밍 어소시에이츠 © 2023 모든 저작권은 작가에게 있습니다.

어른에게는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아이는 얼마든지 작업에 참여할 수 있고 자신의 일부를 놓아둘 수도 있지만 어른은 접근이 차단된 채 멀리서 형형색색의 덩어리들을 바라보아야만 한다. 것처럼 멀찍이 서 있는 어른들에게는 이 공간이 일종의 점묘화로 읽힌다. 개별적인 요소들이 서로 섞이지 않은 채 놓여있음에도 관객의 눈에서 자발적으로 섞이는, 공간에서의 점묘화로 읽힌다. 그리고 마치 쇠라의 점묘화가 그랬듯이, 어쩌면 이것이 아이들이 만들어낸 작품을 정확하게 보는 방법일지도 모른다. 그와 동시에 도래할 미래를, 아이들이 불러올 세계를 보는 가장 정확한 방법일지도 모른다. 물론 우리는 그 세부사항을 알아볼 수가 없다. 형형색색의 금줄이 아이들만 허락하는 높이로 작품 곳곳에 쳐 있기 때문이다. 아니 어쩌면 금줄이 없더라도 알아볼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다만 긴장한 표정으로, 이 세계가 다음에는 어떤 모양을 갖출지 멀리서 바라볼 뿐이다.

이렇게 아이들은 하나의 세계를 불러온다. 아파트가 굽어보는 북서울미술관의 로비에서 아이들이 만들어낸 환상의 세계가 꾸물거리는 생명체로 자라난다. 불러온 생명체는 이미 작가의 손에서 벗어났다. 그것은 아이들의 손에 맡겨져 꾸물거리며 자라난다. 심지어 전시가 끝난 뒤 철거된 자리에서도 아이들이 불러올 세상은 계속해서 자라난다. 아이들이 만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위협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서도호와 아이들이 불러낸 세계는 일종의 환영과 같은 것이지만 그것은 언제나 그렇듯이 도래할 무언가를 미리 말해준다. 그 환상의 세계가 무엇을 말해주는지, 아직 우리는 알 수가 없다.

### 한 발짝의 거리

작가들은 종종 관객보다 한 발짝 앞서 환상적인 세계를 만들어낸다. 관객이 무심코 지나쳤던 순간을 한없이 확대하거나, 인식의 범위 바깥에 있던 감각을 일깨우고 도래할 세계를 미리 불러온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만들어낸 세계에 매혹되어 전시장으로 향해 그들의 눈을 빌린다. 우리는 그곳에서 찰나 동안이지만 그들처럼 생각하게 된다. 세미가의 색이, 최지원의 무표정한 인형이, 서도호의 환상적 세계가 만들어진 이유를 이해하게 된다. 그러나 작가의 눈을 빌리더라도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작가가 관객보다 한 발짝 앞서듯이, 작품도 작가보다 한 발짝 앞서기 때문이다. 마치 생명체처럼 앞서가는 작품 앞에서 우리는 단지 각자의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 뿐이다.

### 정영수

2023 조선일보 신춘문예 미술평론에 당선되었다(『아름다운 괴물에서 불길한 폐허-이불(Lee Bul)론』). 디자인, 건축, 미술, 시를 다룬다.